

지식재산으로 세계 진출 케이(K)-푸드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 특허청, 떡볶이 수출 선도기업 (주)영풍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3.27.)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 27.(목) 15시 30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받은 식품기업인 (주)영풍(대구시 달서구)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떡볶이 등 우리 전통 음식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진출 특허전략 지원, 제품·포장디자인개발,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주)영풍은 실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떡볶이 밀키트를 개발한 기업으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8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다양한 식품 분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주)영풍의 조재곤 대표이사는 기술 혁신과 브랜드가치 창출을 통해 케이(K)-푸드 수출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2024년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주)영풍은 대구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해외 시장별로 최적화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받았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이후 확보한 해외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이 늘며 지원 기간(’22~’24년) 동안 매출액이 47%(136억 원) 증가*했다.

* 매출액 (’21년) 306억 원 → (’24년) 452억 원

김완기 특허청장은 “케이(K)-푸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핵심 산업으로, 미래 국가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더욱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주)영풍 현장방문 개요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책임자	과 장	정선웅 (042-481-8621)
		담당자	사무관	백성진 (042-481-5630)

□ 현장방문 개요

- **(목적)** K-FOOD 수출 선도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 **(일시·장소)** '25. 3. 27(목) 15:30~16:20, 영풍(대구 달서구)

< 농업회사법인 영풍 기업개요 >

- **업종** : 식품제조업(떡볶이 간편식, 냉동 전, 떡류 등)
- **지재권 현황** : 특허 13건, 디자인 10건, 상표 43건 등록
- **지원** : 3개년 IP 로드맵 수립 후, 해외권리화(9건),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2건), 포장디자인(2건), 신규 브랜드 개발(1건), 리뉴얼브랜드(3건) 등을 통해 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중 지원 실시

□ 주요 참석자

- **(특허청)** 특허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지역산업재산과장 등
- **(진흥화지역센터)**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 **(기업 관계자)** 대표이사, 전무이사, 연구소장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15:30~15:40	(10분)	참석자 소개 및 기업 소개
15:40~16:00	(20분)	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16:00~16:20	(20분)	공장 방문